

김요한 · 안서현, 스타등용문 '학교2020' 얼굴



김요한과 안서현이 '학교 2020'의 얼굴이 된다.

오는 8월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드라마 '학교 2020' (극본 김지영, 류솔아/연출 한상우)는 남주인공 김태진 역할로 김요한이 출연을 확정했으며, 여주인공 나금영 역할은 배우 안서현의 출연이 유력하다. 안서현의 출연은 4일 뉴스1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학교 2020'은 1999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드라마 '학교' 시리즈물로, 사회에 입문한 18세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적나라한 생태를 그린다. 인문계 학생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이들의 청춘에 대한 고민, 막막한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킬 예정이다.

그동안 많은 학원몰이 입시를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것과 달리, 전체 고교생 중 16% 이상의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다는 점에서 차

1999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드라마 '학교' 시리즈물

특성화고 이야기 차별점...내달 촬영 시작 8월 중 첫방송

별화된다. 지난 2011년 출간된 소설 '오나의 남자들' (작가 이현)을 원작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먼저 김요한은 극 중 주니어 대표로 전국체전 동메달까지 획득한 태권도 선수였으나,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는 때에 맞춰 치명적인 발목 부상을 입으며 운동을 그만두고 특성화고로 진학한 김태진 역을 맡는다. 온갖 풍상을 경험해 어른처럼 말하고 다 큰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엔 아직 좋아하는 소녀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소년이라는 열여덟 살 순진한 고등학생 캐릭터다.

실제 김요한은 데뷔 전 태권도 국가대표 삼비군이었던 이력이 있다. 전국소년체전에서 두 번의 우승 경력이 있을 정도로 유망주였던 그가 싱크로율이 높은 역할을 선택하면서 캐릭터 소화력에 대한 기대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안서현은 '학교2020'가 기획되던 지난 해부터 일지까지 여주인공 물망에 올랐다. 안서현은 여주인공 나금영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성화고 2학년인 나금영은 서울 외곽 지역의 노래방집 딸이다. 평범하게 화목한 가정에서 평범한 성적, 평범한 성격

의 소유자다. 장래희망도 유튜버가 되고 싶은 딱 요즘 10대다.

안서현은 그동안 다수의 작품에서 아역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으며, 최근에는 넷플릭스 영화 '옥자'의 주연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04년생인 그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실제 고등학생 배우가 주인공을 맡는 것은 학교 시리즈 중 처음이다. 10대 배우인 안서현이 10대 캐릭터를 맡아 더욱 현실감 넘치는 연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학교2020'은 1999년부터 시작된 KBS의 대표 브랜드 드라마인 '학교' 시리즈의 8번째 드라마다. 20여년 간 시리즈를 이어오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학생들의 고민과 학교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다뤄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특히 다수의 청소년스타들을 배출한 스타등용문으로 불린다. 그간 장혁, 조인성, 공유, 김민희, 하지원, 이종석, 남주혁, 김우빈, 장동윤 등이 '학교'를 통해 인기를 얻은 만큼, 이번 시리즈로 부각될 유망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 2020'은 오는 3월 첫 촬영을 시작해 8월 중 처음 방송될 예정이다.



누군가 사어나 리커에 의문의 짐가방을 넣었다. 사어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중간(배성우 분)이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이 짐가방을 발견하게 되고, 가방 안에 5만원권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게요."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 태영(정우성 분)은 자신의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채 빚을 남긴 채 사라져버린 애인 때문에 고리대금업자 두만(정만식 분)에게 온갖 협박을 받으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중 그의 앞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액의 돈이 나타난다.

주부 미란(신현빈 분)은 사기로 생긴 빚 때문에 매일이 불행하다. 남편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미란을 폭행하고 미란은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 몰래 고군분투했다. 그런 그 앞에 불법채용사 진태(정가람 분)가 나타나고, 진태는 미란과의 미래를 위해 범죄를 계획하게 된다.

지난 4월 언론배급사사회를 통해 배일을 밟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감독 김용훈)은 인생 마지막 기회인 돈 가방을 차지하기 위해 최악의 한탕을 계획하는 평범한 인간들의 범죄극으로, 동명의 일본 소설이 원작이다. 영화는 흔들리는 가장 중반과, 공무원 태영, 그리고 가정이 무너진 주부 미란까지 지극히 평범한 인간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는 총 6개 챕터로 이어져있다. 빛, 호구, 먹이사슬, 상어, 럭키 스트라이크, 돈가방이라는 챕터에는 각 사퀀스에 담고자 했던 인물들의 서사가 담겼다. 이 세 명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초반 독립적인 서사처럼 진행되지만, 점점 하나의 퍼즐처럼 조각이 맞춰지고, 불행이 더 고조될수록 이들 인물이 어떻게 얽힌 관계인지 더욱 궁금증을 더한다. 인물들의 연관성을 따라가다 보면 예상 밖 전개가 이어지고, 영화의 끝에서 관객들은 생각지 못했던, 인간의 민낯과 마주하게 된다.

영화의 이 같은 전개 방식은 다소 낯설다. 감독이 의도한 전개 방식에 몰입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전도연의 등장도 예상보다 늦다. 뒤늦게 등장했지만 매력적이고도 매력적인 술집 사장 연희로 등장해 단숨에 영화의 공기를 바꾸고 흐름을 이끌고 간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제목은 영화의 내용과 의미가 자체다. '하루 인생'들의 마지막 선택이 부른 비극을 총체적으로 내포했다.

오는 12일 개봉.

강타♥정유미, 6개월만에 열애 인정 "최근 연인 발전, 좋은 감정"



"친한 선후배서 연인으로"

지난해 8월 열애 부인 후 인정

그룹 H.O.T. 멤버 강타(41)와 배우 정유미(36)가 두 번째 열애설 끝에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강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뉴스1에 정유미와 강타의 열애설과 관련해 "두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라며 열애를 인정했다.

정유미 소속사 에이스팩토리 측도 이날 뉴스1에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관계로 지내오던 중 최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8월에도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강타 소속사 측은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했고, 정유미 소속사관계자도 "열애는 사실이 아니다. 친한 동료다"라고 전하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다시 불거진 열애설 끝에 두

사람은 열애 증임을 인정했다.

한편 강타는 지난 1996년 그룹 H.O.T. 멤버로 데뷔해 연이은 히트곡을 내놓으며 9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스타로 자리잡았다. 이외에도 솔로 활동을 이어오며 활동을 펼쳤고, 지난 2018년에는 MBC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에서 다시 H.O.T.의 재결합 무대를 선보였다.

정유미는 지난 2004년 KBS 2TV 드라마 '애정의 조건'으로 데뷔해 MBC '동이' SBS '천일의 약속' '옥탑방 왕제자'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MBC '감방남녀' OCN '프리스트'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세븐틴, 일본 첫 돔 투어 3회 추가...현지 폭발 반응

그들 세븐틴이 돔 투어 3회 공연을 추가 확정했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일 오후 세븐틴 재팬 공식 사이트 및 SNS를 통해 '사이타마 메트라이프 돔' 2회와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1회 추가 공연 개최 확정을 알렸다.

앞서 세븐틴은 2018년 5월 일본에서 정식 데뷔 이후 약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020년 5월 도쿄 돔,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의 첫 번째 돔 투어 개최를 확정 지었다.

특히 일반 티켓 예매 오픈 전에도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고, 일본 내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사이타마 메트라이프 돔 공연장에서의 개최를 새로이 확정 지었다. 더불어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에서도 1회가 추가, 4개 도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세븐틴의 이번 돔 투어는 약 35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4대 돔 투어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일본 첫 번째 싱글인 'Happy Ending'으로 2019년도 오리콘 연간 인디즈 싱글 랭킹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현지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줘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독보적인 라이브 퍼포먼스와 남다른 음악성으로 꾸준한 성장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만의 눈부신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뉴스1

김서형x류덕환 '민보' 조합 탄생 '아무도 모른다' 첫만남 공개

내달 2일 첫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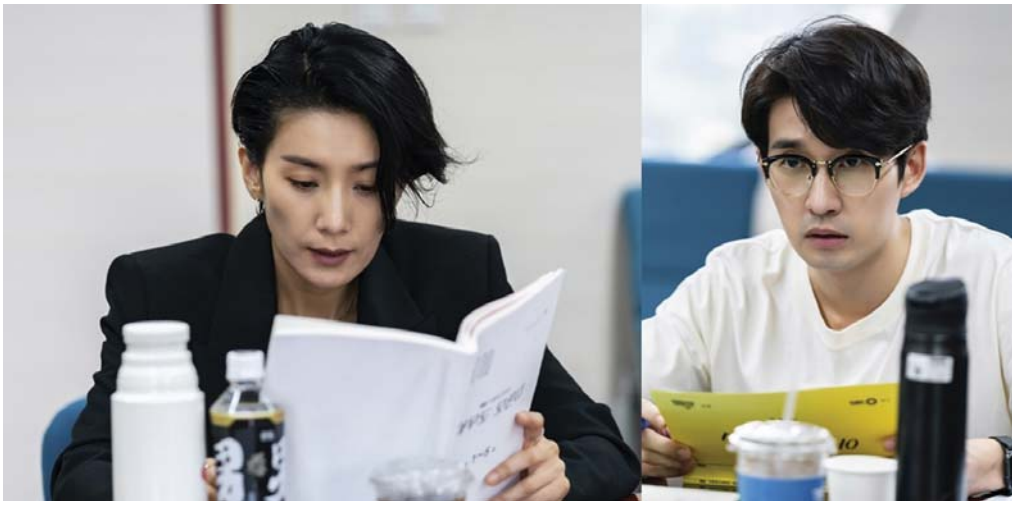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

'아무도 모른다' 대본리딩 현장이 드러 공개됐다.

오는 3월2일 처음 방송되는 SBS 새 월화드라마 '아무도 모른다' (극본 김은향/연출 이정홍)는 '좋은 어른을 만났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를 주제로 경계에 선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이다. 김은향 작가의 촘촘하고 탄탄한 대본, 이정홍 감독의 힘 있는 연출이 만나 명품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무도 모른다'의 활기찬 출격을 알렸던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은향 작가, 이정홍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과 김서형, 류덕환, 박훈, 안지호, 문성근, 민진웅, 강예원, 박철민, 전석찬, 조한철, 윤찬영 등 주요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참석했다.

먼저 극을 이끌어 갈 김서형의 열연이 돋보였다. 김서형은 휘몰아치는 사건 중심에 선 주인공 차영진의 처절하고 역동적인 심리를 뛰어난 집중력과 에너지, 폭 넓은 표현력으로 담아냈다. 이미 철저한 캐릭터 분석을 마친 듯 외모, 말투, 눈빛까지 완벽한 광수대 형사의 모습을 그려낸 김서형, 어떤 캐릭터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배우



김서형의 저력에 스태프들의 감탄이 이어졌다.

이어 한층 깊어진 연기를 예고한 류덕환도 기대를 모았다. 극중 신성중학교 교사 이선우 역을 맡은 류덕환은 서서히 사건에 빨려 들어가는 인물의 감정을 완벽한 강약 조절로 그려냈다. 특히 순식간에 캐릭터에 몰입하는 눈빛과 목소리는 '민고 보는' 배우 류덕환을 기대하게 했다.

숨막히는 존재감을 예고한 박훈도 돋보였다. 극중 박훈이 맡은 백상호는 중요한 사건의 장소가 되는 호텔 대표, 숙제를 알 수 없는 표정과 번뜩이는 눈빛 등, 리딩부터 이토록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한 박훈이 본 드라마에서 어떤 열연을 펼칠지 기대감을 더했다.

이외에도 문성근, 민진웅, 강예원, 박철민, 조한철, 전석찬, 강신일 등 명품배우들

이 대거 참여해 '아무도 모른다'의 탄탄함을 더했다. 여기에 아이와 어른의 이야기를 그리는 '아무도 모른다'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청소년 배우 안지호(고은호 역), 윤찬영(주동명 역) 등의 활약도 감탄을 유발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린 시절이 아닌, 극 중심에 선 청소년 배우들의 강렬하고 집중한 연기는 드라마의 색깔을 뚜렷이 보여줬다.

치열한 몰입과 열정, 열연이 가득했던 대본 리딩 현장이었다. 배우들은 대본리딩 내내 지친 기색 없이 각자 맡은 캐릭터, 극에 몰입해 실제 현장을 방불케 하는 열연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은향 작가, 이정홍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 역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 작은 것조차 놓치지 않는 디테일한 노력을 기울였다.